



표지사진 : 학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이덕아남과 학생들이 잠시 휴식을 즐기며 즐거워 하는 모습

JTS 통권 30호 2001년 7· 8월

펴낸날 : 2001. 7. 5

펴낸이 : 범 루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한인봉, 구미경,

최정연, 장옥희, 김경희, 이순희,

이상임, 정영희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인도

4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수자타 아카데미

인도특집 - 인도 동게스와리 지역 마을 개발사업

북한

10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 및 알반구조 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

12 아름다운 청소년

청소년과 명상

그리고

14 후원의 소리

깨달음의 장을 다녀와서

북녘의 친구들이

16 광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살업자 및 살직노동자 집단상담(수련) 및 연구 Workshop

18 활동보고 및 안내

20 회원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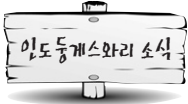
21 통일대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3 신규회원 명단

24 특별후원금

25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Sujata Academy



6월25일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해는 10일 먼저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등교길에 진흙탕에 미끌어졌습니다. 신발을 신고 오기도 힘이듭니다.

그리고 뱀들도 길가에 많아서 아이들에게 조심해서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JIVAKA Hospital



우기가 빨리 시작되면서 설사병환자와 날씨 변화로 열병과 감기 환자가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철이면 설사병환자가 많은데 빨리 병원에 오면 좋

은데 탈진된 상태에서 실려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영양부족 상태에서 조금만 설사를 해도 이곳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4학년 여학생 베비 쿠마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엎어져서 두바늘 꿰매고 지근도 치료중입니다.

6월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5월에 자그디스푸르의 8살 소녀 소비르르 결핵으로 치료를 해줄 생각을 못했고 우리는 소비르르가 병원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16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으나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했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비르르의 손을 병원에 이끌고 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마을 개발



women's education program이 마을마다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개마을 189명의 부녀자들이 참가하여 hindi와 숫자셈하기 등을 배웁니다.

6월30일 월레모임에 부녀회원, 마을유치원 교사들이 범룬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문의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orkcamp준비



지난 6월 22일 범룬스님, 수레스 범우님과 한국인 4명이 수자타 아카데미에 도착하였고 한달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동계스와리 전체마을을 6월 25일 돌아보았고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workcamp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도 동게스와리 지역 마을개발사업

정정임 (마을개발 책임자)

1. 현황

(1) 건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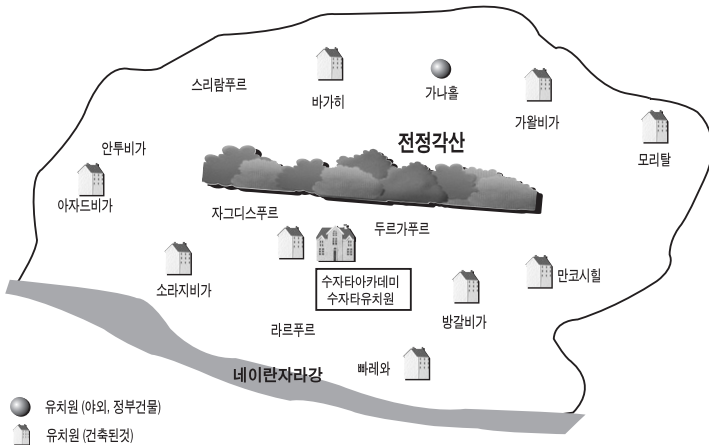
2000년 7월 이후 교문 옆 그라모다야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2001년 1월 이후 예전 지바카 병원(무료진료소)으로 옮겼음. (확장이전)

가. 유치원

지역	건물	핸드펀프	지역	건물	핸드펀프
방갈비가	0	0	가나올	-	-
가왈비가	0	0	베레와	건축중	0
바가히	0	-	겐두와	-	-
모리탈	0	-			

※마을개발팀에서 지원하는 7개의 유치원외에 4개의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

(2) 마을지도



수자타 아카데미 주변 유치원

2. 마을유치원 교사 현황

가. 마을교사(15명)

마을이름	교사이름	성별	활동시작년도
가월비가	카필데오	남	1997.9.5
	마노즈	남	2000.2.10
	다르멘다르	남	1999
방갈비가	람팔리	남	1997.9.5
	람빌라쉬	남	2000.2.10
가나홀	수레쉬	남	2000.9.1
	비노드	남	2000.3.10
모라탈	꼬살리아	여	1997.10
	수레쉬	남	1997.10
	산토쉬	남	2000.4.17
	라제쉬	남	2000.4.17
빠레와	미라데비	여	2000.5.26
	암라쉬	남	2001.1.26
바가히	라즈	남	2001.4.16
겐뚜와	지텐드라	남	1997.5.7

나. 유치원 학생수

유치원	2000년	2001년	유치원	2000년	2001년
방갈비가	28	35	모리탈	76	118
가나홀	94	119	빠레와	37	77
가월비가	41	58	겐뚜와	75	52
바가히	29	45	합계	380	504

다. 어머니회

	Mothers group	Self help group	Wemens group
파 레 와	20	15	35
방갈비가	10		10
가월비가	8	5	13
바 가 히	17		17
가 나 홀	24	2	26
모 라 탈	32	32	64
겐 뚜 와	10		10
합계	121	54	175

3. 사업현황

가. 유치원 운영

지금 현재 7개 유치원이 15명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사들은 자원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마을 유치원에 지원되는 물품은 칠판, 의자, 물통, 교수자료, 분필,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이다. 유치원 초창기 교수방법의 훈련을 토대로 지난 1년간 마을 개발 사업과 지도자 훈련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친환경적인 교육방법 모델제시도 필요하고 인도의 전통적인 교육방식도 고려를 해야한다.

이번에 새로 결정된 내용이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일정금액의 수고비를 3년에 한 번씩 경조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가족들의 결혼식에는 적당한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사경력 많은 사람은 마을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사람의 위치에 적당한 일을 주어 생계에 직접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빠레와의 경우 여러 가지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건물이 1999년에 시작된 후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가나홀의 경우 지난 4월에 건물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각 유치원의 담장 만들기, 확장, 수리 공사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나. 어머니회 운영

월례회의 참가현황

월	참가인원
2000.8	20
9	사르바다나훈련
10	"
11	20
12	62
2001.1	성지순례
2	구자라트파견(지진)
3	56
4	웅변대회

어머니회를 구성한지 4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띈 성과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이끌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마을지도자나 우리들이 가서 나서지 않으면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교사들과 함께 월례회의가 있는데 1년 동안 4번 밖에 진행을 못한 것이 안타깝다.

어머니회가 마을 지도자의 노력과 자질에 따라 역량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생들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더불어 모임을 만들고 나아가 유치원 운영을 해 나가려는 것이 어머니회의 주 사업이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어머니회의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 스스로 회비를 모으고 그들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기술적인 면 미싱, 마을 은행운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한다.

다. 식수 지원

마을개발 대상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설치한 핸드펌프가 있는 곳은 3곳 뿐이다. 그 외 직영유치원(4곳)이 있는 곳도 마을개발 팀에서 정기적으로 우물과 핸드펌프를 점검하여 수리하고 소독약을 넣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잘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가 핸드펌프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유치원 건물이 없거나 마을 펌프가 있는 곳이다. 지금 한참 건기철인데 대부분의 마을 펌프들이 물이 마르거나 고장이 난 상태이다. 우리가 설치한 핸드펌프는 100%수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핸드펌프도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지원하지 않고 일부분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식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결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라. 건강증진활동

마을 사람들의 건강문제는 지바카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로 지은 병원의 운영방안에 마을 개발사업이 연관되어 있다. 병원카드를 실시함에 있어 마을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차별화를 두어 마을 개발사업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전에도 실시되었으나 별 차이가 없어 마을 부녀회

의 불만이 있어왔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2번 정도 병원 쪽과 마을개발팀이 운영방안 회의를 가졌다.

마을개발 차원에서는 진료비등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고 병원측은 무료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절충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마을 개발사업에서 부녀회의 상승효과를 위해 마을부녀자와 어린이를 위한 모자보건센터를 지바카 병원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마. 훈련 지원

어머니회의 경우 기술훈련중에서 미싱교육이 이루어졌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직업훈련의 담당자와 기술자의 부재로 미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싱교육의 경우 하리잔(불가촉천민) 마을은 모든 재료를 지원하였고 일반 마을은 지원되지 않았었다. 일반 마을이라고 해서 생활 수준이 절반 다르지 않으므로 적당한 규칙은 아닌 것 같다. 전문가를 구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구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마을 리더들의 경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미싱교육과 타자교육이다.

바. 수입원개발

이것은 잘 지원된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가능한 일이다.

타단체의 경우 “소갯기운동” 즉 어떤 지원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우유를

짜고 그걸 팔아서 돈을 갖고 자기의 소
가 되는 것인데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보았다.

둥게스와리의 경우 적당한 수입원을 찾
기가 어렵다. 대출을 줄 만큼 마을 개발
사업이 지금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사
업의 방향성에 있어 타당한 일인가도
점점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머니들이 회비를 내고 그것을
계속 지도자들이 관리해 왔으

나 은행 창구를 마련해
서 은행에 저금을 하
여 대출을 받던지
이자를 늘리는 방
법이 진행되고 있
다.



◀ 제 2 차 워크숍
접수받는 마두리 (정정임)

사. 문자교육

100%에 가까운 문맹율의 마을
어머니들을 위하여 힌디어를 읽고 쓰기
나 선행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둥게스와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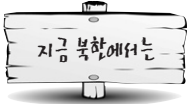
▲ 마을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치원교육 - 학생과 교사들



마을개발 초창기에 문자해독 프로그램
이 파레와 마을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
데 올해 다시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시
키고 있다.

강사는 마을리더나 마을에서 가능한 어
머니 중에서 찾아 보도록 한다. 마을 어
머니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
지를 보여주었다.

현재 가활비기에서 계획서를 내었고 일
부의 물품이 지원되었다.



식량 및 일반구호 활동의 현황과 과제

법륜 스님(한국JTS 이사장)

97년 이후로 98년까지 긴급 식량 구호 성
격이 강하였다. 99년 이후 취약계층 지
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잉여물자 지원이 확대되었고 지원 물자
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식량 및 일반구호 활동의 향후 과제

1. 한국 정부

①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량 식량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OECD가입국은
최소 GDP의 0.1%를 제3세계 해외개발원
조에 사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치는
0.25% 이다. 노르웨이는 0.99%나 되고 미
국은 0.1% 수준이다. 한국은 0.1%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GDP의 0.1%라면 4억6,000
만US\$(약 5천 800억원 이상)이 넘는다. 제3
세계 각국에 지원하는 돈을 제외하고도 최
소 매년 5,000억원(4억\$)은 대북 인도적 지
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 북한
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식량, 의약품,
생활필수품, 농자재 등으로 4가지의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옥수수 100만톤 2천억원, 의약품 1천억원,
생활필수품(비누, 칫솔, 치약, 내복 등) 1천
억원, 비료 30만톤 1천억원, 합하여 5천억
원이 된다. 한국 정부는 매년 정부 예산에
서 5,000억원 정도를 대북 인도적 지원사
업에 배정하고 최소 3년은 지속적으로 지
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기아, 질

병의 긴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②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대북지원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향후 5
년간 신무기 도입 계획에 소요될 예산인
4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최소 3년간 지원액
1조 5천억원은 그 4%에도 못 미치는 미미
한 양이다. 북한의 민중을 위해서 뿐만 아
니라, 인도적 지원이 가져올 남북간의 화
해와 협력은 군사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한국에 안겨준다.
정치, 군사, 경제적인 문제는 상호 협력하
에 서로 이익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풀
어가야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호
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최근
의 상황에 견주어 보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민간NGO

③ 어린이, 임산부, 고아원 어린이, 노인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성장기
의 어린이들에게는 영양식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7세 이하의 100만 어린이 전원
에게 영양식이 공급되어야 한다.

④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물자
가 라진이나 남포에 도착하더라도 내륙 깊
숙한 곳에 있는 지역에는 일단 운송이 어
렵다. 그러므로 대북지원 단체들이 물자의
지원과 함께 운송수단이나 운송 방안에 대

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국내 NGO들이 컨서시움으로 (북한, 국제기구 참여해서) 물건을 지원하는 곳까지 수송되는 과정도 모색되어야 한다.

- ⑤ 대북지원 NGO들의 지원 내용과 방안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직접구호에 가까운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후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구호 활동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 ⑦ 이제는 장기적인 북한 개발구호에 따른 시스템적 지원이 요망된다. 식량 구호를 뒷받침하는 농업, 산림 지원 등의 개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

- ⑧ 북한 정부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농 및 소규모 농장의 확대, 농업 방식의 개선, 생산물의 자유로운 판매, 물자 이동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 ⑨ 국제기구의 원조물, 정부 차원의 대량 지원물에 대해서는 분배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⑩ NGO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NGO 후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접 구호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분배 확인 자료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
- ⑪ 인도적 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낼 때에 북한측에서 다른 경협 물자와 달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십자 물건이 갈 때 적십



자 마크가 찍히는 것 같이, 대북협력 NGO들이 지원하는 물자에도 NG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⑫ 육로 운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현재 인도적 지원물자의 운송비가 컨테이너당(20피트) 750US\$이 든다. 북한정부는 육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4 국제기구

- ⑬ UN산하, EU등 국제기구에서 대량의 지원 및 개발 계획이 따라야 한다. 또한 북·미, 북·일 대화가 진행되어 미·일의 대량지원과 IMF, IBRD, ADB등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위 글은 2001년 6월 18일 용인 삼성휴먼센터에서 있었던 제 3차 대북협력 국제 NGO 회의때 법륜 스님이 발표한 내용중 일부이다.



청소년과 명상

난승 방기연 (깨달음의 장 진행자)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일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을 내지 못했고, 어른들이 공부보다는 일을 시켰다. 먹고살기 바빴으니까 그럴 만도 했다. ‘학교 간다고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하는 식이었다. 이런 시절과 견주어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

은 너무나 다르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갔다 와서도 이것저것 배우느라 마음껏 놀 시간도 없다. 부모 세대가 못 배운 한을 가지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교육열이 지나치리만큼 높아서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공부가 일이 되었고, 학교 생활에서 낭만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자칫 지나친 거름에 익숙해져서 불안에 시달리기 쉽다. 뒤쳐질까봐 불안하고 비난을 들을까봐 불안하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 머릿속은 늘 너무나 혼잡하다. 머리는 커지고 몸과 가슴은 작아지는 위태로운 모습이라거나 할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크기보다 남보다 앞서서 사람으로 커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다 보니 감성이 메마르고 실천력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요즘 들어서 신경증이나 정신병을 앓는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삶이 고단하고 막막해서 도저히 버텨낼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법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을 겪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진 셈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기계가 일손을 많이 덜어주어서 남는 시간이 많아질 법 한데, 어찌 된 일인지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

아무튼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머리만 커지기를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를 잃고 있는 셈이다. 무엇을 위해서 다투고 겨루는지 살펴볼 여유도 없이 내몰리고 있는 꼴이다. 아마도 남을 이기거나 앞서면 행



복해질 것이란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여기에 명상의 필요성이 있다. 명상이란 숨가쁘게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고요히 쉬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뜨거운 해가 지면서 평화로운 느낌이 들게 하는 저녁 무렵의 분위기와 같은 것이 명상과 어울리는 이미지라고 하겠다.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잘 드러지고 잘 보이는 법이다. 명상은 잘 느끼고 잘 보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련이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바쁜 사람일수록 명상이 필요하다. 자신을 숨가쁘게 몰아치면서 무엇인가 쫓기는 기분에만 빠진 사람이라면 명상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도 명상은 잘 어울리는 좋은 방편이 된다.

명상은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명상을 깊이 하면 알지 못하던 자신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며,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 된다. 바깥으로 치달던 마음이 쉬면서 행복의 조건에 급급하던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는다. 욕심이나 욕망에 끌려서 갈증을 느끼던 바쁜 삶이, 지금 이 자리를 마음껏 느끼며 순간을 즐기는 여유로운 삶으로 바뀐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명상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때이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명상만큼 도움이 되는 활동도 흔하지 않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살피면 그것이 훌륭한 명상이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핀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서 행동을 분명히 해 간다. 이렇게 깊이 살피다 보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가갈 수 있게 된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는 것만이 명상은 아니다. 행동을 격렬하게 하면서도 자신을 살피고 있다면 그것은 명상이 된다.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명상을 흉내내는 것이지 전혀 명상이 아니다. 기운이 넘치는 청소년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보라고 가르친다면, 이런 가르침은 성의가 없거나 어리석은 가르침일 뿐이다. 많이 움직이는 것이 편한 청소년들한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강조한다면, 이는 청소년을 명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살필 수 있으면, 움직이면서도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명상은 움직이지 않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데 핵심이 있다. 청소년들한테 어울리는 명상법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명상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달음의 장을 다녀와서

김정희 (여, 33세)

올해 10년간의 직장생활을 떠났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나와 안맞는 것 같은데 하는 갈 등이 있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두려웠다. 막연히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다.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에 깨달음의 장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고 나는 주저없이 선택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항상 설렘 그 자체였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였고 양파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듯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난 왜 못했을까 못하고 살았나 하는 후회나 자책이 아닌 깨달음이 왔다. 깨달음은 책에서나 보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편하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었다. 어느덧 다시 출발선에서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떠나오기전의 출발선은 아니었다. 왜 나를 바꾸려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나를 보게된다.

※ 행정자치부지원 깨달음의장 제188차에 다녀온 김정희씨의 소감으로, 김정희님은 현재 JTS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앞줄 좌측에서 3번째가 김정희님

북녘의 친구들아

- 통일 돼지를 키운 남한 어린이들이
북한의 유치원 탁아소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

☺ 통일 초등학교 5학년 5반 기은경

☺... 북한 탁아소 동생에게.

안녕~? 나는 남한에 있는 통일초등
학교의 학생이야.
5학년 5반의 지은경이야.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힘든거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부쌍했어.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못 보내지만.....
내 마음을 보낼게... 편지를 통해...
하루 빨리 통일이 생각하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열심히 용돈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너희들한테 얼마 안되지만
작은 선물을 보내줄게.
있잖아.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남한이 통일 할수있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는거 같아.
너희들과 만나면 내가 아주
잘 해줄게.



☺ 통일 초등학교 5학년 5반 최원



Whenever you are blue, just think of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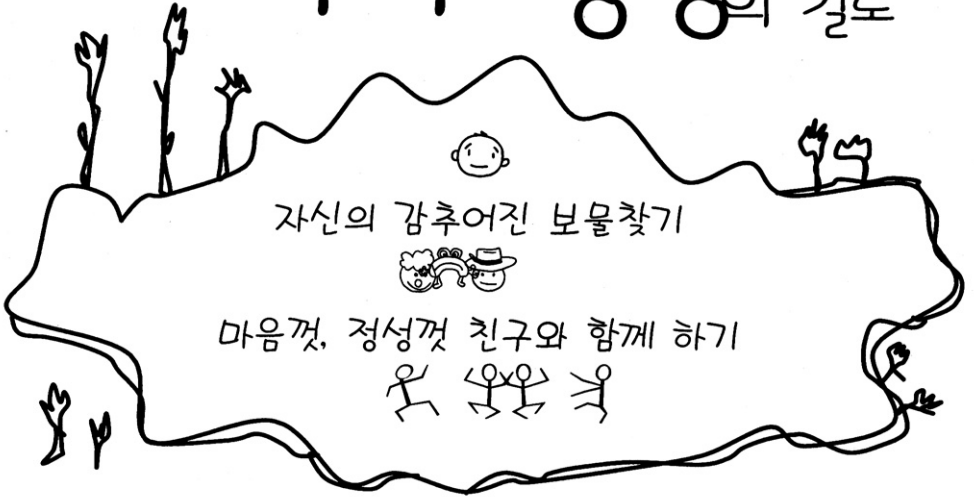
To. 북한 아예 어찌?
안녕? 나는 남한에 있는 통일초
등학교 5학년 5반 최원이야.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힘든거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부쌍했어.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못 보내지만.....
내 마음을 보낼게... 편지를 통해...
하루 빨리 통일이 생각하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열심히 용돈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너희들한테 얼마 안되지만
작은 선물을 보내줄게.
있잖아.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남한이 통일 할수있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는거 같아.
너희들과 만나면 내가 아주
잘 해줄게.



1318 ORANGE STORY NO.011-G1-001 MADE IN KOREA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 ☎ 일 시 : 8월 5일 ~ 8월 9일(4박 5일) ☎ 수련장소 : 정토수련원(경북 문경 소재)
- ☎ 참가비 : 무료(교통비 포함) ☎ 후 원 : 서울특별시
- ☎ 대 상 : ① 서울지역에 살며
 - ② 부모가 실직상태에 있어서 마음이 불안한 청소년
 - ③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고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
 - ④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
 - ⑤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명
- ☎ 참가신청 : 청소년, 부모, 선생님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 선정(587-8756 담당 김애경)
- ☎ 준비물 : 필기구, 갈아입을 옷, 칫솔, 수건, 운동화, 샌들(또는 슬리퍼), 모자
- ☎ 모이는 장소 : JTS 강당(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정토회관 3층)
-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전방 200미터 골프스키골목

한국제이티에스 청소년 사업부

전화:587-8756 전송:587-8998 인터넷:http://www.jts.or.kr E-mail:ypower@jts.or.kr

실업자 및 실직 노숙자 집단상담 (수련) 및 연구 workshop

- 행정자치부 지원 프로그램 -

깨달음의 장

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느새 화나지 않는 사람,
알거나 못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린 사
람, 순간 순간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깨어있는 사
람,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있게 됩니다.

나눔의 장

'나눔의 장'은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마당
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생
명의 심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
롭고 넉넉해지지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서 우리가 되
는' 그 감동을 스스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1차	5. 9(수)~13(일)	8차	8. 1(수)~ 5(일)
2차	5.23(수)~27(일)	9차	8. 8(수)~12(일)
3차	6. 6(수)~10(일)	10차	8.15(수)~19(일)
4차	6.20(수)~24(일)	11차	10.10(수)~14(일)
5차	7. 4(수)~ 8(일)	12차	10.24(수)~28(일)
6차	7.13(수)~17(일)	13차	11. 7(수)~11(일)
7차	7.18(수)~22(일)	14차	11.21(수)~25(일)

교 육 일 정

1차	5. 9(수)~13(일)	5차	8.15(수)~19(일)
2차	6. 6(수)~10(일)	6차	10.10(수)~14(일)
3차	7.13(금)~17(화)	7차	11. 7(수)~11(일)
4차	8. 1(수)~ 5(일)		

수련공통

참가대상 : 실직자 또는 실직 노숙자
예 택 : 20만원의 교육비 전액 지원
모집인원 : 매회 4명
수련장소 : 문경정토수련원 ☎ 054-571-6031)
수련신청 : (사)한국제이티에스
전화(02-587-8756, 8995) 팩스(02-587-8995)
http://www.jts.or.kr 이메일(ypower@jts.or.kr)
신청방법 : 전화면접(수혜대상자 및 추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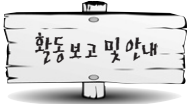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수행 결과 Workshop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오후2시~5시
장 소 : 정동회관 2층 강당
참가대상 : 실업자 및 노숙자 프로그램 담당자
상담가 및 실업자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
연구발표 (자료집 발간)
수련을 토대로 세미나 자료집을 발표하고,
실직자 집단상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workshop



시민변인 국제 기아·질병·윤형 퇴직 민간기구

한국제이티에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제 3차 국제워크캠프-인도체험봉사활동 면접, 사전교육 실시

인도 현지 봉사활동 프로그램 '사랑의 집짓기' (7월 8일~22일)에 참석할 지원자들의 면접이 6월 9일~10일 양일간에 있었다.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 면접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사전교육은 6월 16일 서초동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있었다.

면접과 사전교육을 거친 70여명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인도 동게스와리 현지에서 7개 마을에 목욕탕 만들어주기, 유치원 공사, 쉼터 만들기, 아이들 목욕 시키기, 옷 나누어 주기 등을 하였다.



인도 마을개발사업 보고회

인도 마을개발사업 보고회가 5월 30일 정토회관에서 있었다. 인도현지에서 일시 귀국한 인도제이티에스 마을개발사업 책임자인 정정임님은 이 모임에서 동게스와리 마을개발사업과 수해지역 긴급지원 활동 및 국제NGO활동가워크샵 참석 보고와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을 발표했다.

북한지원 사업

민족평화협력운동본부 6월 20일 출범

민족평화협력운동본부(이하 민평협)가 6월 20일 역삼동 성당에서 출범했다.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인 오태순 신부님이 상임공동대표로, 한국제이티에스 법륜스님과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박사, 유진벨재단 스티븐 린튼 박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출범한 민평협은 여전히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생명운동과 나눔운동, 참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3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

2001년 6월 17일-20일 경기도 용인 삼성휴먼테크에서 제3차 대북협력국제 NGO회의가 있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북미의 각국NGO 단체대표들이 참여하여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JTS에서는 법륜스님 외 4명이 참석하였다.

국내 사업

실직자를 위한 무료수련

6월 30일까지 제 4차에 걸쳐 깨달음의 장에 17명이 참가하였고 2차에 걸친 나눔의 장에 6명이 참가하여 무료 혜택을 받았다. 향후 총 13차례의 실직자 무료 혜택 프로그램이 남아있다. 자세한 문의: 02-587-8756(정영희)

청소년 대상 무료심성수련 진행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마음을 열어 자기 성장을 돕는 예술치료와 명상 프로그램을 서울 안천 중학교에서 8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실직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학교 생활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무료 심성프로그램이다. 방학기간인 8월 5일-9일(4박 5일)에는 정토수련원에서 숙박으로 무료 심성 수련이 진행된다. 각 수련일정 문의 및 참가신청은 전화 02-587-8756와 인터넷을 참조하면 된다.



인천 구산중학생들 한국제이티에스 찾아

6월 2일 인천 구산 중학교 환경·봉사·통일반 학생들이 활발한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 제이티에스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 21명을 맞은 제이티에스는 한국JTS가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와 비디오 상영을 통해 소개하고 서로간의 생각과 느낌 나누기, 발표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청소년모금활동

6월 2일과 9일 광주 조대여고 인도반 및 북한반 학생 20명이 인도와 북한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조대병원 앞과 충장로 일대에서 벌였다. 6월 16일에는 날새팁 친구들이 명동에서 모금활동을 하였다.



또 다른 아침

최대원심 (JTS 회원관리부장)

다른 날 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한다. 엎드려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오래 전 알게 된 현문스님이 생각난다. 언제나 말없이 손수 법당을 청소하시면서 내 마음의 때를 벗기듯 정성을 다해 하라고 하셨다. 그후 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다. 다 하고 나면 어느덧 내 마음도 상큼해진다.

매칠 전부터 만남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린 수없이 많은 이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만날 수 있는 이들이 요즘은 매우 고맙게 생각된다.

어쩐 어려움도 다 견디면서 만나기 때문이다. 어차피 만나면 헤어지는데 정들었던 이가 떠나면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오랫동안 회원 이시다 떠나는 회원이 있을 때도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

언제쯤 모든 것을 여유하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까? 어제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냥 무거웠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눈부신 햇살을 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온다.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2001년5월, 6월 제이테에스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명단입니다.

주소를 몰라 소식지를 보내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주위의 인연이 닿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현 금-김달휘(10만원) 신준성,신준분(2만) 허지원(10만원) 서소숙(1만)

*국민은행-이윤경(2만) 유상열(6천)

*국민제이-신동열(2만) 서성갑(5천) 백윤관(3만) 한희순(7천) 권광구(1만) 강현구(2만)
문길련(5천) 문해순(1만)

*국민동포-유경자(1만) 백성현(1만)

*한빛제이-이삼련(1만) 윤규희(1만) 하상수(2만) 윤선애(1만) 박주영(1만)

*농협제이-신순자(7천) 양창모(2천) 구이용(3만) 이옥수(1만) 장영은(2만) 신경화(1만)
박근직(1만) 이순임(1만)

*조흥제이-임창호(2만) 양창보(2천) 양창모(2천)

*외환제이-정현근(1만) 손정남(1만) 강승우(2만5천) 이귀숙(3만)

*주택제이-양창모(2천) 김진철(1만) 유계조(5천)

*국민결연-고영숙(3만)

*우 체 국-김재홍(5천) 장원익(3만) 박옥희(5천) 광명희(5천)

*하나제이-최인선(10만) 최미전(1만)

*단위농협-김동수(1만)

*지 로-장효란(2만) 이상민(2만)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4.21-5.31)

● 단체

송광사 100,000 광명정보고 38,290 신행회 26,430 신행회 28,040 광명정보고 10,780
 안성법당 178,320 즐거운 어린이집 84,050 칠원초등학교 60회110,000
 대구법당 20,000 한마음선원 332,890 한마음선원 31,500 신행회 33,100
 마산시청감사실직원 26,630 동국산업마산공장 사원일동 19,370

● 개인

이수경 5,850 박정덕 51,450 무명 12,610 잠명화 17,770 박상진 23,900 박유창 22,970
 김은호 24,410 손다선 23,200 장도현 7,390 문근나 9,100 이승화 21,300 이효정 7,630 박조
 38,500 홍해진 15,570 강민혁 8,280 김화순 45,000 박동만 60,440 박영민,박수민 22,790 무명
 21,890 정든영 38,200 김수미 5,000 이승규, 최윤희 53,040 용수웅 4,590 무명 19,340 정명균
 23,140 정지훈 22,850 곽양관 7,370 무명 25,030 무명 40,250 김경한 3,300 박도용 6,800 윤해숙
 89,500 고지원 16,210 김대희 7,680 임영자 10,290 최훈열, 승연 17,770 안준필 3,860 이상애
 1,930 변준석 27,800 유종숙 21,240 이지연 14,850 무명 20,540 박성호 12,510 송호성 5,790 무명
 25,380 강동우 9,050 김영재 1,720 이슬 2,910 강새봄 5,080 장보람 510 김선우 4,880 박주현
 7,020 윤표 29,710 무명 18,890 연동혁 4,620 김정은 3,140 이영근 27,280 무명 25,460 송미란
 4,580 서치욱 37,450 이수민 34,050 윤태숙 40,600 최서현 2,270 김지원 8,940 이진 2,880 임재욱
 4,480 무명 21,740 박승우 9,290 유지인 23,490 김애숙 18,160 김현숙 26,980 조정휘 30,860 채
 경화 5,550 이성희 5,160 박경희 23,000 이등준 11,950 윤남표 30,000 권재순 10,890 무명 21,450
 전셋별 21,580 박지영 6,560 정찬영 43,660 김수진 1,520 이선자 69,570 김인숙 6,950 이진경
 41,000 신덕화 31,280 이길효 16,490 김민주 7,500 김재영 7,820 김영석 4,110 윤희나 20,550 이
 효진 1,730 이지혜 11,980 김권중 5,210 강병미 6,280 은서, 현서 10,330 추성지 2,800 유준열
 39,310 김여름 8,070 김권중 2,760 조슬기 6,060 무명 29,660 박상연 19,550 윤희나 2,690 오주원
 3,520 무명 25,240 김민영 8,180 권혁민 12,090 엄선철, 이귀자 100,000 양윤선 18,890 무명
 20,630 이지유 11,730 무명 17,720 무명 22,530 고향숙 62,820 김형상 2,300 무명 23,100 엄윤주
 2,570 정연재 17,000 박진혁 33,430 무명 20,440 이상민 5,800 김지윤 13,120 허경미 15,270 무명
 56,030 강재연 37,460 송연경 13,460 이경희 9,030 김용석 5,760 허수진 11,940 이정순14,520 조
 성근 10,270 박향선 13,250 박동찬 8,180 이연지 21,800 오택 18,940 김재길 13,170김성희 26,330
 강애니 20,260 임근태 36,280 최지훈 68,760 설갑문 35,900 회장암 14,800 무명14,030 무명13,500
 법률 43,270 김기숙 12,830 윤영실 21,190 김성희 26,410 윤소영 11,280 김애경 10,380 신승욱
 23,250 류현복9,530 계정희 11,920 서봉순 8,490 이동기 44,080 황대호 6,770 정인호 12,050 고철
 호 36,460 남경숙,서외숙 18,640 오정숙 7,330 정말란 15,680조선경 19,360 한혜자 40,150 박진우
 17,640 김영순 15,340 김양희 14,500 최은정 8,010 조미라 6,830 김은숙(부동식) 13,890 황영태
 5,710 조은순 14,550 진상해 7,400 박상준 8,100 하재환 27,130 엄갑인14,570 박상경 3,130 임영
 화 17,000 정윤자 13,310 조정숙(일월동) 25,480 엄성우외3인 10,160 이맹순 21,500 이타행
 45,320 윤태임 16,880 임숙이 29,770 손영희 5,640 무명(주황색) 29,360 장수경 23,600 유애경
 17,160 이정자 27,890 최연주 31,110 이숙 9,590 이정숙 25,380 김연숙 14,190 범용스님 17,650
 범용스님 53,610 조영희 16,810 김도영 38,450 대학생과 시민 11,670 우정 15,420 최대석 30,180
 김유미 18,760 정성훈 51,650 박주아 33,980 우연 23,670 박혜연(묘혜) 11,410 김유미 9,110 정명
 숙 79,700 한영옥 46,700 서봉수 17,090 김중수 19,050 고민호 29,950 이택건 9,040 김동찬
 15,950 허경미 43,350 신현진 22,500 한수경 7,450 양경순 11,400 서재운 10,500 이경재 34,280
 무명 13,300 김애자 22,640 이광섭 8,600 한미영 22,800 이미람 11,550 유명규 10,260 김희정



20,460 고행자 18,010 김동균 31,510 유재영 4,130 조흥은행 6,890 이정건 13,680 박상경 2,850
 장옥희 7,700 조재혁, 조희연 8,270 박영자 20,120 윤옥순 16,810 김향 13,810 김애식 21,460 정운
 국 6,010 김익구(일광) 8,100심정화 3,490 채대영 29,970 윤정숙 3,990 한혜숙 21,660 조성아
 8,180 윤원 23,500 김병환 16,700 무명 16,950 권정원 30,000 이춘화 28,680 김희오 49,990 조혜
 옥 43,380 안부금 26,350 이인수 10,000 이하늘, 김정아, 한명희 20,860 정덕영 38,720 정소미
 21,650 이희석 9,700 이타행 36,100 박정구 10,000 황선옥 60,000 신세린 신정음 50,000 이용직
 30,000 국군마산병원 전역군의관 55,000 류창우 10,000 하정숙 30,000 묘길수 85,390 묘길수
 31,860 장봉례 100,000 장경호 59,700 김용학 60,000 고지연 2,000 한선범 10,000 이덕련 20,500
 김순희 30,600 정미령 39,030 정복례 17,260 무명 77,250 김정희 50,410 합천식당 16,480 김영숙
 22,050 황재봉 8,000 김연경 23,960 최복례 29,550 신순남 15,440 최정순 31,530 박난주 24,950
 최정희 20,000 정양수 100,000 박의린 수간호사 17,570 류송희 16,900 국군통합병원 진료 기관
 병 11,850 무주상 100,000 김수정 99,500 김도환 33,900 김지은 25,330 박근숙 13,670윤슬기
 14,710 윤원중 85,390 최정옥 9,400 이인복 20,220 문선호 39,690 신무식 26,310 박종혁 19,830
 김동환 18,510 김종재 22,640 남정자 23,740 김명진 16,570 최재두 62,240 최병균 23,040 권순조
 20,470 김선자 8,260 윤새별 14,450 정길진 5,300 임은숙 25,960 흥관회 10,470송병화 43,800 조
 접자 17,890 도은자 29,950 고금례 4,030 김태은 35,660 한 술 6,230 박일권 16,590 다정분식
 8,930 종 우 6,230 김창심 15,560 김창심 27,700 신현미 26,290 황관희 18,490 정종현 26,540 김
 남희, 정해윤 17,880 배순희 19,160 최현태 14,210 김춘호 30,000 김철환 7,870 조옥분 34,850 조
 순옥 16,150 조진우 5,860 손종호 8,530 대은향 5,050 권영순 31,510 최상진 10,000 이윤동
 21,310 김경애 11,000 자혜심 11,050 최현숙 23,850 김경임 9,580 박향은 3,380 백애란 7,840 김
 옥자 22,220 김영순 7,410 신재환 14,680 이정화 12,360 정해윤김남희 13,830 김진국 22,650 김
 정오 9,700 유을용 2,940 손창일 56,670 민재 강구인 16,060 박정숙 19,150 김옥주 27,810 윤채희
 16,840 노영숙 28,100 지상민 5,000 박분경 1 2,920 강혜림 14,520 전재근 25,480 유미애 27,160
 노영숙 23,900 강승화 12,560 무주상 1,690 전병화 50,000 김현자 26,850 김영순 8,660 김정자
 16,700 손민기 5,530 김광선 30,710최일선 11,460 문진복 6,510 객민경 11750 객진수 10,340 변창
 진 5,310 최정우 8,740 박진주 3,940 이준권 3,380 이새별 3,070 이영은 2,53 0윤재환 3,630 권세
 윤 3,070 이유정 3,440 박정민 7,110 박효정 2,850 김영주 1,400 김채운 2,670 진효정 4,770 최가
 연 950 김도립 3,270 박민경 2,050 조영래 13,980 전영재 20,870 이금강월 13,530 전병득 34,090
 이영희 11,070 최용근 31,170 오경아 4,990 고경태 2,970 강정완 4,830 송유주 5,150 하성철
 4,370 배기남 6,540이민정 6,840이선희 1,250 김상곤 14,310 신호철 3,650 손근수 17,400 박분이
 32,030 최은희 3,000 박지일 12,830 최광수 35,240 박성기 24090 박현목 4850 정순환 19720 서신
 영 4820 이호영 6410 한갑순, 박진우 9260 이금자 10000 이정숙 11000 황선진 120김화숙 10620 이
 경녀 16850 이은하 14670 정영록 4170 김순희 5690 구자용 24890 조옥남 15600 구훈회 23200 추
 귀만 15910 이순규 15660 박재민 2240 정운성 5380 한갑순, 박진우 8590 객대원 5380 김여옥
 16010 구선용 17080 이주옥 4870 김순옥 23160 이명우 22440 수복 31940 최봉자 11440 김민정
 9390 남해옥 3700 안주리 3300 고주행 3520 부경민 10500 한승희 1620 김예진 6000 양경자
 22300 강정숙 73170 차순자 20380 서정삼 9150 정선아 9900 임종수 23640장태석(녹십초) 21920
 임종호 29420 윤병혜 16540 이주옥 19350 고순남 30560 진현희 6010 정창식 17830 안혜진
 22630 장일석(녹십초) 28850 구훈희 723160 김희숙 16350 장영숙 24730 임성규 27730 조운상
 13590 김정희 17160 손정숙 8570 이순란 26640 채혜린 12950차순자 26570 김지예 6970 손정숙,
 김효민 19170 정지수 29750 오은선 12340 황태순 13610 이한숙 23150 남경화 10,110 한초자
 33300 김영선 6880 신화숙 4150신화숙 6190 김영현 5840 무주상 31750강지은 23320 강효영
 12450강문영 13630 정승환 21110 정현태 11600 윤남숙 42100 남경화 6400 남창우 3480 남기동
 5670 정현창 28300 안창형 23900 권정원(도법성) 30,000 안부금 26350 조혜옥 43380 김희오
 49990이춘화 2868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 이은영 211-02309-11
- 박상현 211-02310-11
- 황사동(순자) 211-02311-11
- 안선옥 211-02312-11
- 박솔아 211-02313-11
- 황미숙 211-02314-11
- 최형숙 211-02315-11
- 정은희 211-02316-11
- 우순예 211-02317-11
- 소병선 211-02318-11
- 이경남 211-02319-11
- 박선영 211-02320-11
- 김윤서 211-02321-11
- 조순자 211-02322-11
- 김정수 211-02323-11
- 이종일 211-02324-11
- 김동수 211-02325-11
- 김재웅 211-02326-11
- 손기태 211-02327-11
- 배경모 211-02328-11
- 문현영 211-02329-11
- 박상현 211-02330-11
- 장한나 211-02331-11
- 조성현 211-02332-11
- 황봉석 211-02333-11
- 정종식,허지원,정희경 211-02334-11
- 현준영 211-02335-11
- 송유섭 211-02336-11
- 김지석 211-02337-11
- 안지선 211-02338-11
- 이미숙 211-02339-11
- 윤완수 211-02340-11
- 이재익 211-02341-11
- 노숙자 211-02342-11
- 노귀영 211-02343-11
- 차민태 211-02344-11
- 김상명 11-02345-11

- 이선주 211-02346-11
- 박영교 211-02347-11
- 오정석 211-02348-11
- 최일영 211-02349-11
- 박상영 211-02350-11
- 박기춘 211-02351-11
- 강희재 211-02352-11
- 이성영 211-02353-11
- 이계원 211-02354-11
- 남부자 211-02355-11
- 홍성원,성락 211-02356-11
- 이수원 211-02357-11
- 강순덕 211-02358-11
- 오정순 211-02359-11
- 조미나 211-02360-11
- 송영돈 211-02361-11
- 이종은 211-02362-11
- 송현경 211-02363-11
- 윤경애 211-02364-11
- 고석급 211-02365-11
- 의선스님 211-02366-11
- 이명식 211-02367-11
- 조재현 211-02368-11
- 김경옥 211-02369-11
- 조대환 211-02370-11
- 원자혜 211-02371-11
- 김형철 211-02372-11
- 이상구 211-02373-11
- 노임순 211-02374-11
- 박수진 211-02375-11
- 구혜원 211-02376-11
- 한판기 211-02377-11
- 윤미옥 211-02378-11
- 천윤미 211-02379-11
- 덕진스님 211-02380-11
- 최은숙 211-02381-11
- 박은우 211-02382-11
- 이은선 211-02383-11
- 이영화 211-02384-11
- 윤옥희 211-02385-11

- 박석주 211-02386-11
- 정낙용 211-02387-11
- 전경란 211-02388-11
- 윤지원 211-02389-11
- 김명진 211-02390-11
- 김주웅 211-02391-11
- 나주충 211-02392-11
- 강숙경, 최철 211-02393-11

인도 어린이 결연

- 경주귀빈여행사 111-02537-14
- 박종혁 111-02538-14
- 이성호스님 111-02539-14
- 남형은 111-02540-14
- 박봉진 111-02541-14
- 임은주 111-02542-14
- 박동원 111-02543-14
- 손금애,이승아111-02544-14
- 강계옥 111-02545-14
- 송기윤 111-02546-14
- 송명희 111-02547-14
- 강시재 111-02248-14
- 소경숙 111-02549-14
- 박은희 111-02550-14
- 장주현 111-02551-14
- 김응수 111-02552-14
- 이상민 111-02553-14

단체 결연

- 김은옥,박연성 212-00220-11
- 하근수 212-00221-11
- 파워미디어컨설팅 212-00222-11
- 인헌중학교알뜰시장 212-00223-11
- 컴퓨터월드 212-00224-11



특별후원금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들어온 명단입니다

특별후원금

<5월의 성금>

김달휘-10만원
 박난주-10만원
 허지원-10만원
 원광대학교모금
 -5,750원
 최청운-1,000만원
 대동정산고-10만원

<6월의 성금>

인천구산중학교환경봉
 사통일반-36,600
 김순자-100만원
 익명-10만원
 대한불교청년회
 김규범-10만원
 정혜리-5만원
 동아대학교-5만원
 김애자-10만원
 김태진-8만원
 익명-5만원
 전교조초등위원회강원
 지부-2,579,856원
 김도영-320만원

미국L.A-\$150(192,750)

대구 권대자-5만원
 포항 죽립사
 (자성스님) 500만원
 인헌중학교알뜰시장
 574,680원
 광주흥사단 조대부고
 아카데미-404,450원
 외환카드북한어린이돕
 기 윤복희 외 183명
 -1,105,000원
 김길수-50만원

후원물품현황

보영섬유 어린이옷
 600벌
 정양어패럴 어린이옷
 1850벌
 우연어패럴 어린이옷
 150벌
 시앤아이 어린이옷
 1BOX

의약품 지원

일동제약-영양제(에센
 비타) 500개, 항생제
 주사액
 김원랑 차장님-항생제
 연고 560개 (개인)
 동국제약- 피부질환연
 고 1000개
 마데카솔 300개,복합마
 데카솔 100개
 현대약품- 영양제(태
 권왕,강태풍) 500개,
 소독약
 유유산업-VC(유관-씨)
 560포
 한국제약협회-결핵약
 피부질환연고
 김태준안과(통영)-안
 약 200개
 정규덕 피부비뇨기과
 (마산)-피부질환크림
 500g×5,소독약 4 l ×4
 수술복 4벌,연고케이스
 200개



라진·업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6. 30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6. 30현재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1. 6. 30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6. 30현재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1. 6. 30현재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이면 인도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 80이면 펌프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정기 거리모금 행사

서울 :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까지 동부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거리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부산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 첫째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이나 유치원 등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가방,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앨범정리, 스크랩 등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함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E-mail:jts@jts.or.kr

http://www.jts.or.kr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